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간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박승탁
영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Well-being between Korean Liberation Generation and Baby-boom Generation

Seoung-Tag Park

Division of Social Welfare,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요약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54년까지의 해방세대와 그 이후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베이비붐세대로 노인인구집단을 세분한 후 이 두 세대 집단 간 사회적 자본(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과 안녕감에 있어 평균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별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및 영향력에 있어 두 세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D지역에서 200명의 자료를 수집해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와 참여, 그리고 종속변수인 안녕감은 두 세대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네트워크만이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가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각 집단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을 비교·검토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을 90% 수준으로 완화해 살펴보면 네트워크는 두 집단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동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β 값으로 상호 비교하면 네트워크는 해방세대의 안녕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이들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구안에 관한 정책적·실무적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subdivide the group of elderly population into the liberation generation as a poor generation that experienced the barley hump, and the baby boom generation to verify differences in the mean of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between those groups of two generations, to verify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well-being, and then to review differences between those groups of two generations regarding the effects of subfactors of social capital on the well-being.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from 200 people excluding missing values from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liberation generation born in 1945-1963, in the D region from July 1st to July 31st, 2018.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results of comparatively reviewing the social capital having effects on the well-being of each group of liberation generation and baby boom generation, when reliev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to 90%, the network was working as a variable having effects on both groups. In this case, when mutually comparing the influence of regression coefficient as β value, the network had a relatively larger effect on the well-being of the liberation generation.

Keywords : Baby-boom Generation, Liberation Generation, Social Capital, Well-being

*Corresponding Author : Seoung-Tag Park(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email: pst1145@hanmail.net

Received November 10,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Revised December 8,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저출산과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인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3.8%였고, 2020년에는 15.7%로 추계되고 있어[1]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건강한 노화, 삶의 안녕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2], 이에 대한 효과적 정책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위기감을 오래 전부터 인식한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했고[3], 이후 다양한 후속 조치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제도적 장치 마련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영라와 이숙중(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처한 생태체계적 환경 조건과 삶의 질적 수준 유지에 필요한 욕구 등이 항상 동일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4]. 예를 들어 1954년 이전 출생하여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이른 바 '해방세대'와 195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동일한 노년기를 맞이했지만, 각기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했고, 각기 다른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상이한 생태체계적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이처럼 노인인구집단 내에서도 하위 집단 간의 상이한 생태체계적 환경과 삶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노인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시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노인인구집단 내 하위 집단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실제 상이한 환경적 조건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또한 환경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삶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구에도 차이가 있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두 세대 집단 간 차이를 밝혀낸 연구 수행이 미흡하지만, 몇 가지 정황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해방세대는 통상적으로 1945년부터 195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데[5], 이들은 절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 헌신한 세대이다. 그러나 해방세대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낮은 수준의 교육 혜택

속에서 문명사회와의 적극적 연계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4]. 이로 인해 노년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생활상 자원 조건이 열악해 안녕감으로 대변되는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세대[5]는 현재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직전에 두고 있어 노후 대책에 관심이 높은 세대라 할 수 있는데[6], 이들은 좋은 교육 혜택을 받은 고학력자 인구집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운동 등을 주도[7]하면서 개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강력한 사회적 자원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자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의 형태로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다[8]. 사회적 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비붐세대는 안정적 생활상 자원 구축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 왔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어디까지나 정황적 근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집단을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로 구분하여 이들 하위 집단 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특히 안녕감에 대한 차이를 실증 분석한 연구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 증진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예측변수로 기능한다는 실증적 근거는 매우 활발히 축적되었다. Yip 등(2007)은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9]. 권미옥과 이경탁(2015), Kim과 Lee(2011)는 사회적 자본 증가가 관계의 생성, 관계의 확장 효과를 불러와 개인의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0, 11].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안녕감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12-15]. 노인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안녕감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실증연구도 다수 발견된다[16-18].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인구집단을 특정 집단으로 구분해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실증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주기상 노인기에 접어들어 동일세대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는 출생 집단의 개념을 따를 때[19] 비교적 세대 간 구분이 뚜렷한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이 두 하위 집단 간 사회적 자본과 안녕감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또한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차이

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이 원활히 달성된다면,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는 데 본 연구 결과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 인구를 단순히 노년기에 접어든 동일한 집단으로 여기지 않고, 좀 더 세분화해 욕구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음에 주목하는 참고자료로써도 기능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54년까지 보릿고개를 직접 경험한 빈곤세대인 해방세대와 그 이후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붐세대로 노인인구집단을 세분한 후 이 두 세대 집단 간 사회적 자본(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과 안녕감에 있어 평균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별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및 영향력에 있어 두 세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Fig.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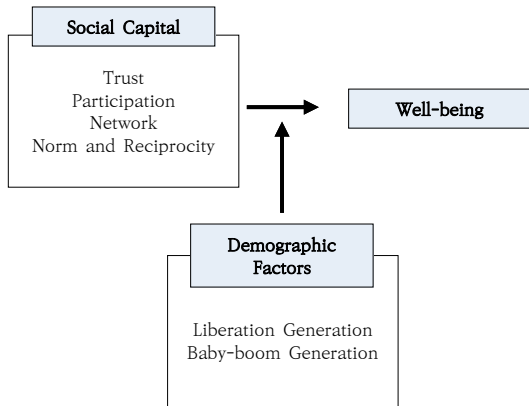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한편, 이 연구 모형에 따라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H1: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간에는 사회적 자본과 안녕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2: 해방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안녕감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H3: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며 출생연도가 1945년부터 1963년까지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총 240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여에 걸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대상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내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노인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여 자기기입식 질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 대상자는 편의표집을 하되,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를 각각 120명씩, 남자와 여자 또한 각각 120명씩 할당해 표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이 있거나 무성의한 응답이 있는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0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반영된 조사 대상자는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각각 100명이었고, 남자는 88명(44.0%), 여자는 112명(56.0%)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중퇴 이하가 32명(16.0%), 중학교 졸업이 48명(24.0%),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68명(34.0%),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40명(20.0%), 대학원 이상 졸업(수료 포함)이 12명(6.0%)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68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 30명(15.0%), 판매직 22명(11.0%), 전문직 18명(9.0%), 경영관리직 16명(8.0%), 생산관리직과 사무직 각각 12명(6.0%), 의회의원 4명(2.0%)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18명(9.0%)이었다. 월 소득(용돈 포함)은 100만원 미만이 48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4명(22.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명(2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0명(15.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6명(13.0%), 500만원 이상이 12명(6.0%)의 순으로 나타났다.

2.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3.1 종속변수: 안녕감

안녕감은 개인적 욕구와 행복한 삶을 위한 만족의 정도라 할 수 있다[2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녕감 척도는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척도[21]를 임동현(2014)이 수정·변안한 척도[2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문항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 역채점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감의 수준이 높음으로 해석한다. 안녕감의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값이 .30 미만으로 극히 낮아 중요도가 떨어지는 9개 문항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문항을 제외한 후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4였다.

2.3.2 설명변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의 형태를 뜻하는데, 이것은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하위요인별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신뢰는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분되는데, 사적 신뢰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낯선 사람 각각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지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공적 신뢰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로 측정되는데, 그 공적기관으로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중앙정부, 서울시청, 구청, 동사무소, 경찰,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설문문항으로 측정을 하였다. 신뢰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믿지 않는다(1점)'에서 '전적으로 믿는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 수준이 높음으로 해석한다.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0이었다.

참여는 지역사회행사에 참여하는 정도, 반사회에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 일차적 결사체와 자선·봉사모임이나 단체, 종교단체, 친목·취미모임이나 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단체나 모임 등 이차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참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1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 수준이 높음으로 해석한다.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9였다.

네트워크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공식적 네트워크로 구분되는데,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자녀의 수, 형제자매의 수, 월평균 자녀와의 접촉 빈도, 음식을 나누거나 간단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의 수, 위험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를 묻는 설

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공식적 네트워크는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자선·봉사모임이나 단체, 종교단체, 친목·취미모임이나 단체, 시민단체 등 가입하고 있는 단체나 모임의 수를 묻는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네트워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많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구축 수준이 높음으로 해석한다.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58이었다.

규범 및 호혜성 중 규범은 차례 지키기, 교통질서 지키기, 공공장소 내 금연 등과 같은 규범 및 규칙의 준수 정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정도, 범법자나 위험요소 발견 시 신고 행위를 하는 정도를 묻는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호혜성은 지금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훗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규범 및 호혜성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규범 준수 및 호혜성의 정도가 높음으로 해석한다.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17이었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분석으로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 연구변수의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파악을 위해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기초분석 중 빈도분석과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는 지면 관계상 본 논문에 상세히 제시하지 않고, 특히 참고해야 할 사항만 간단히 제2장 연구방법에서 제시하였다. 둘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간 사회적 자본과 안녕감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각각의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3.1 기초분석

3.1.1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4개 하위변수(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와 안녕감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댓값 및 최솟값을 확인하고, 분포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 크기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최소 .034에서 최대 .778 사이에 분포하였고, 첨도는 최소 .128에서 최대 1.597 사이에 분포하였는데, 왜도의 절댓값은 모두 3 미만, 첨도의 절댓값은 모두 10 미만이므로, 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Spec.	Mean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Trust	2.83	.634	1.00	4.00	-.452	-.128
Participation	2.25	.784	1.00	4.80	.420	.429
Network	3.36	1.093	1.00	5.00	.491	.555
Norm/Reciprocity	3.46	.755	1.00	5.00	-.778	1.597
Well-being	3.32	.539	1.75	5.00	.034	1.472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mong of research variables of liberation generation

Spec.	1	2	3	4	5
1. Trust	1				
2. Participation	.026	1			
3. Network	.028	-.036	1		
4. Norm and Reciprocity	.104	-.174	-.019	1	
5. Well-being	.077	.152	.293**	-.006	1

** $p < .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among of research variables of baby-boom generation

Spec.	1	2	3	4	5
1. Trust	1				
2. Participation	-.006	1			
3. Network	.250*	.136	1		
4. Norm and Reciprocity	.021	-.067	-.044	1	
5. Well-being	.280**	.076	.266**	-.068	1

* $p < .05$, ** $p < .01$

3.1.2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는 앞서 연구모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이 두 집단별로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각각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3>과 같다.

먼저 <Table 2>를 살펴보면, 해방세대의 경우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93, p<.01$).

<Table 3>은 베이비붐세대에 있어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인데,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r=.280, p<.01$), 네트워크($r=.266, p<.01$)와 각각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각 집단의 안녕감과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서로 다르고, 그 상관성의 정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간 안녕감과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분석

연구변수인 안녕감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Table 4. Differences in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between liberation generation and baby-boom generation

	Spec.	M	SD	t	p
Trust	Liberation Generation	2.65	.588	-4.284	.000***
	Baby-boom Generation	3.02	.628		
Participation	Liberation Generation	1.90	.663	-7.040	.000***
	Baby-boom Generation	2.60	.740		
Network	Liberation Generation	3.34	1.131	-.361	.718
	Baby-boom Generation	3.39	1.059		
Norm and Reciprocity	Liberation Generation	3.42	.636	-.841	.401
	Baby-boom Generation	3.51	.859		
Well-being	Liberation Generation	3.47	.508	4.010	.000***
	Baby-boom Generation	3.17	.531		

*** $p < .001$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의 경우 해방세대의 평균은 2.65($SD=.588$)이고, 베이비붐세대의 평균은 3.02($SD=.628$)로써 베이비붐세대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4.284, p<.001$). 참여의 경우에도 해방세대의 평균은 1.90($SD=.663$)이고, 베이비붐세대의 평균은 2.60($SD=.740$)으로써 베이비붐세대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7.040, p<.001$).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해방세대의 평균은 3.34($SD=1.131$)이고, 베이비붐세대의 평균은 3.39($SD=1.059$)로써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361, p>.05$). 규범 및 호혜성의 경우에도 해방세대의 평균은 3.42($SD=.636$)이고, 베이비붐세대의 평균은 3.51($SD=.859$)로써 이 또한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841, p>.05$).

한편, 안녕감의 경우에는 해방세대의 평균이 3.47($SD=.508$)이고, 베이비붐세대의 평균은 3.17($SD=.51$)로써 해방세대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4.010, p<.001$).

3.3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3.3.1 해방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해방세대에게 있어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우선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는 최소 .957에서 최대 .997까지 분포했고, 분산팽창요인(VIF)는 최소 1.003에서 최대 1.045까지 분포했다.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잔차의 독립성 확인을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그 통계량이 1.956으로 산출되어 오차항은 서로 독립적이라 판단된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

의도 검증을 위해 F 값을 산출한 결과 3.006($p<.05$)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Effects of social capital of the liberation generation on well-being

Spec.	B	β	t	p
(constant)	3.458		8.175	
Trust	.070	.081	.831	.408
Participation	.096	.140	1.427	.157
Network	.130	.290	2.993	.004**
Norm/Reciprocity	.004	.005	.051	.959
$R^2 / adj R^2$.112 / .075			
Durbin-Watson	1.956			
F	3.006(.022)			

* $p < .05$, ** $p < .01$

<Table 5>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4개 하위변수 중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네트워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유의수준 .01에서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993, p<.01$). 이에 따라 해방세대에게 있어 비공식적·공식적 네트워크의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안녕감, 즉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 참여, 규범 및 호혜성은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3.3.2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붐세대에게 있어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우선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는 최소 .917에서 최대 .993까지 분포했고, 분산팽창요인(VIF)는 최소 1.007에서 최대 1.091까지 분포했다.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잔차의 독립성 확인을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그 통계량이 2.269로 산출되어 오차항은 서로 독립적이라 판단된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 *F*값을 산출한 결과 3.404($p < .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Effects of social capital of the baby-boom generation on well-being

Spec.	<i>B</i>	β	<i>t</i>	<i>p</i>
(constant)	2.309		6.195	
Trust	.196	.232	2.334	.022*
Participation	.037	.047	.481	.632
Network	.100	.199	1.983	.050
Norm/Reciprocity	-.038	-.061	-.637	.526
R^2 / <i>adj R^2</i>	.125 / .089			
Durbin-Watson	2.269			
<i>F</i>	3.404(.012)			

* $p < .05$

<Table 6>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4개 하위변수 중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유의수준 .05에서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34, p < .05$). 이에 따라 베이비붐세대에게 있어 사적·공적 신뢰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유의수준 .05의 경계선에서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네트워크는 해방세대의 안녕감에 대한 유의한 영향변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대상자 표집에 따라 베이비붐세대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한 영향변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54년까지 출생한 해방세대와 그 이후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붐세대로 노인인구집단을 세분한 후 이 두 세대 집단 간 사회적 자본(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과 안녕감에 있어 평균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검증한 후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별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및 영향력에 있어 두 세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3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설정한 3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간 사회적 자본과 안녕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 검증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와 참여, 그리고 종속변수인 안녕감은 두 세대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선행연구 중 노인을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로 구분해 사회적 자본과 안녕감의 차이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드물지만, 노인집단을 연령별로 구분해 사회적 자본과 안녕감의 차이를 검증한 몇몇 연구와 비교·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영애(2016)는 60세에서 75세까지의 연령집단을 5세 단위로 구분하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보유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높다고 보고[22]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송은옥(201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녕감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보고[23]하여 해방세대의 안녕감 수준이 베이비붐세대의 안녕감 수준보다 높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신숙(2017)은 60세 이후 노인을 5세 단위로 구분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의 형성 수준이 65~69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24] 베이비붐세대에게 해당하는 64세 미만 집단이 해방세대에게 해당하는 연령집단보다 사회적 자본 중 신뢰와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60세 이상 노인을 연령별로 하위집단으로 구분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와 참여의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25, 26]. 안녕감의 경우에도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노인집단 내 연령이 높을수록 안녕감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27].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형성 수준은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중 어느 세대가 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구 결과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

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설계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간 사회적 자본과 안녕감의 차이는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두 세대 간 차이를 규명해 욕구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근거의 축적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해방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검증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수 중 네트워크만이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2020년 기준 해방세대의 연령은 만 66세에서 75세에 해당하는데, 이들 연령대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다른 인구 집단(대학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네트워크가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15, 28]가 있는데, 이들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이 있긴 하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실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는 노인집단 중에서도 특히 연령층이 높은 후기노인층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해당 가설 검증을 통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70세 이상 후기노인은 일반적으로 생활공간의 폭이 거주지 중심으로 좁아지게 되어 노인들 상호간의 협동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촘촘한 관계적 구조를 형성할 때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29]. 이러한 주장에 입각할 때 해방세대는 베이비붐세대보다 더욱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방세대의 심리적 안녕감, 나아가 정신건강을 통한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촘촘한 관계적 구조로써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키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빈곤층 노인일수록 사적 네트워크보다는 공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30]를 감안할 때 해방세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데 있어 빈곤층에 속하는 해방세대를 위해서는 특별히 사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또한 별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검증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가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60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31, 32]가 있는데, 이들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베이비붐세대는 안녕감을 추구하는 데 있어 신뢰를 매우 중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베이비붐세대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데 있어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깃들여 있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삶을 영위해 왔으며, 일 중심적 삶을 통해 가족 양육에 헌신한 세대로 평가 받는다[33]. 이처럼 적극성·가족성·헌신 등의 삶의 가치를 토대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사적 신뢰의 구축, 공적기관과의 관계에서의 공적 신뢰 구축은 베이비붐세대가 적극성·가족성·헌신 등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필요한 전제조건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 결과가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각 집단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을 비교·검토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을 90% 수준으로 완화해 살펴보면 네트워크는 두 집단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β 값으로 상호 비교하면 네트워크는 해방세대의 안녕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해방세대에 관한 논의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해방세대는 후기노인집단으로 이행하는 단계이고, 후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상 삶에 미치는 네트워크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한편, 신뢰는 베이비붐세대의 안녕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방세대의 안녕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 활동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진 해방세대에게 있어 공적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기관과의 접촉 빈도가 낮아지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적 신뢰의 대상이 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도 베이비붐세대와 비해서는 접촉 빈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것이 해방세대에게 있어서는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 같이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의 안녕감 증진에 유력

한 사회적 자본 관련 영향변수는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노인집단 내에서도 구별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구안될 필요가 있음을 본 논의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집단 중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유관 기관 및 담당자를 위해 정책적·실무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구 계층으로 이미 접어든 해방세대와 접어들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안녕감 증진을 통해 삶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 참여 노인이 비참여 노인보다 사회적 자본 축적 수준이 더 높다는 보고[25]에 기초할 때 상대적으로 직업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낮은 해방세대를 위한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 구안 시 신뢰,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빈곤층에 속하는 해방세대를 위한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안 시에는 특별히 사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족과의 접촉 빈도가 낮아 사적 네트워크의 강화에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해방세대를 적극 발굴하여 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이비붐세대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는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적·공적 신뢰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베이비붐세대는 세대 특성상 사회적 정년을 맞이하였으나, 여전히 직업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은퇴 후 또 다른 직업을 탐색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베이비붐세대는 개개인별로 보자면 매우 변화무쌍한 삶의 조건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사적·공적 신뢰 수준을 제고하여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안하기 위한 시도는 현실에 적용하는 데 곤란하다. 결국 개별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상담을 쉽게 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최대한 많이 개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베이비붐세대는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 대상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복지기관에 중년층 대상 상담창구를 적극 개설해 이들이 사회적 자본 축적에 관한 고민이 있어 상담을 요청할 때

적시에 응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삶을 영위해 온 제반 조건이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상이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는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의 안녕감 증진에 유력한 사회적 자본 관련 영향변수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대 간 욕구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투입해 세대 간 차이를 밝히는 실증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밝혀진 욕구의 차이를 토대로 각각 구별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안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의 안녕감 증진을 통해 삶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안녕감의 수준을 정밀히 비교·검토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표집방법을 채택해 표본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세밀한 연구설계를 통해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적 자본, 안녕감, 기타 집단 간 특성 변수의 파악을 통해 이 두 집단의 사회적 욕구의 차이를 명확히 실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각각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다중집단분석을 적용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반이 탄탄해야 하고, 표본의 크기도 상당히 커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수 간 이론적 근거는 충분히 축적되었으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다보니 자원 및 시간상 한계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지 못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다중집단분석의 기법을 적용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을 충분히 표집하여 연구변수 간 영향력의 차이를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로 구분해 비교·검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Estimation of Future Population: Statistical Information Report", Daejeon: Statistics Korea, pp. 47, 2019.
- [2] Lee, Y. G. & Choi, S. I.,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to the Elderly

- People Participating in the Elderly Social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20(2), pp. 151-180, 2016.
- [3] Kim, S. B., "Measures to combat low birth rates and prepare for an aged society", *The Hankyoreh*, 2007. 17 January,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77487.html>
- [4] Lee, Y. R. & Lee, S. J., "Factors Influencing the Asset and the Income Poverty of the Elderly: Focusing on 'Baby Boomers' and 'Liberation and Korean War Gener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57(2), pp. 111-157, 2018.
DOI: <https://doi.org/10.22418/JSS.2018.12.57.2.111>
- [5] Lee, H. 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Leisure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Baby Boomers", *Korean Hospitality and Tourism Academic*, 26(6), pp. 227-243, 2017.
- [6] Yoon, S. Y. & Kang, S. J., "A Comparative Study on Housing Value of Baby Boomer Generation and Eco Gener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018 Fall Conference*, 30(2), 2018.
- [7] Cho, D. H. & Choi, B., "*Job Characteristics and Policy Directions for Baby Boomers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2015.
- [8] Kim, S. J.,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Economic Stress, Exhaustion, and Feelings of Happiness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for Nursing Education Conference*, p. 85, 2019.
- [9] Yip, W., Subramanian, S. V., Mitchell, A. D. et al.,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pp. 35-49, 2007.
- [10] Kwon, M. O. & Lee, K. T.,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on Online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nline Network Service",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8(5), pp. 1485-1503, 2015.
- [11] Kim, J. & Lee, J. E. R., "The Facebook Paths to Happiness: Effects of the Number of Facebook Friends and Self-present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6), pp. 359-364, 2011.
- [12] Baek, H. Y. & Kang, H. A.,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Non-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on Their Career Maturit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47, *The School Welfare*, pp. 155-187, 2019.
DOI: <https://doi.org/10.20993/jSSW.47.6>
- [13] Cooper, H. Arber, S., Fee, L., & Ginn, J.,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on Health: A Review and Analysis of British Data*", London: Health Education Authority, 1999.
- [14] Jang, Y. J. & Kwon, Y. J., "A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in Family, in School and Subjective Well-being Adap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Korean Wellness Journal*, 12(2), pp. 75-87, 2017.
DOI: <https://doi.org/10.21097/ksw.2017.05.12.2.75>
- [15] Yoo, M., Lee, E. Y., Jeon, J. H., & Lee, J. M.,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19(12), pp. 483-501,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12.483>
- [16] Alan, B. & Na, J. M.,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Subjective Well-being Using a Path Analysis Model of Japanese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World Values Survey", *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85, pp. 3-27, 2019.
- [17] Litwin, H. & Shiovitz-Ezra, S., "Social Network Typ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mericans", *The Gerontologist*, 51(3), pp. 379-388, 2011.
DOI: <https://doi.org/10.1093/geront/gnq094>
- [18] Nyqvist, F., Forsman, A. K., Giuntoli, G., & Cattani, M., "Social Capital as a Resource for Mental Well-being in Older People: A Systematic Review", *Aging & Mental Health*, 17(4), pp. 394-410, 2012.
DOI: <https://doi.org/10.1080/13607863.2012.742490>
- [19] Whang, S. M. & Kim, D. W., "Korean Lifestyle and Psychological Identity of Gen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8(2), pp. 31-47, 2004.
- [20] Lim, D. H., "*A Study on the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Death Anxiety among the Korean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ractical Well-being*", Graduate School of Nambu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4.
- [21] Paloutzian, P. E. & Ellison, C. W.,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Y: Wiley, 1982.
- [22] Lee, Y., "The Effect on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12(1), pp. 177-202, 2016.
DOI: <https://doi.org/10.15790/cope.2016.12.1.177>
- [23] Song, E. O., "*The Effects of Elders/ Leisure Satisfac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The Graduate School Hyupsung University(Doctorial Dissertation), 2019.
- [24] Lee, S. S., "Working Elderly Persons'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2), pp. 555-572,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2.555>
- [25] Jeon, S. N., "The Effect of Elderly's Depression and

Social Capital on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0(3), pp. 29-42, 2019.

DOI: <https://doi.org/10.35133/kssche.20191231.03>

- [26] Yim, W. 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Focused on Seoul City",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Doctorial Dissertation), 2009.
- [27] Kwon, J. H., "The Influences of Traits and Social Networks on the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in Korea: The Special References of Korean Elderly's Happiness Model", Yemyung Graduate University(Doctorial Dissertation), 2019.
- [28] Lee, E. C. & Ha, J. K.,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of Migrants: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twork of Marriage Immigrants and th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33, pp. 103-130, 2020.
DOI: <https://doi.org/10.15400/mccs.2020.04.33.103>
- [29] Kim, K. H., Lee, S. K., Yoon, H. J., & Kwon, G. H.,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f Old-old Elderly of More Than 70-year-old on Thei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6(6), pp. 3889-3901, 2015.
DOI: <https://doi.org/10.5763/KAIS.2015.16.6.3889>
- [30] Lee, H. J., Chung, S., & Kim, G. E., "Experience and Meaning of Social Capital of Low Income Elderly Participating the Senior Welfare Center", *Welfare Research for the Elderly*, 60, pp. 143-168, 2013.
DOI: <https://doi.org/10.21194/kjgsw.60.201306.143>
- [31] Alan, B. & Na, J.,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Subjective Well-being Using a Path Analysis Model of Japanese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World Values Survey", *A Collection of Korean-Japanese Economic & Management*, 85, pp. 3-27, 2019.
- [32] Yi, J. M., Gao, H. Y., & Hwang, J. W., "The Effect of the Perceived Social Capital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Social Perception in Early Adult Period", *A Study on Learner-oriented Curriculum Education*, 17(23), pp. 397-422, 2017.
- [33] Shin, K. A. & Han, M. J., "The Korean Babyboomers as New Seniors: Their Attitudes and Perceptions about Life After Retirement and Their Content Needs for Successful Transition", *Media, Gender & Culture*, 25, pp. 113-144, 2013.

박 승 탁(Seoung-Tag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인복지전공 (문학박사)
- 2005년 2월 :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전공 (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영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장애인 노인, 기독교 사회복지